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이 기대했던 경제 상황 아니다'
- Bloomberg: 미 주택 착공 건수, 2020년 이래 최저치... 허가 건수 증가
- Bloomberg: OECD,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전망"

[미국 금융]

- Bloomberg: 10년물 국채 수익률 거의 최고치 기록중

[자동차 파업]

- CNBC: 자동차 노조 파업, 전례없는 여파 미칠수 있어

[COVID]

- Finance Yahoo: 모더나 화이자, 코비드 백신 수요 약화에 우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아마존, 옷 가게 무인 캐셔 개발하다
- WSJ: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 신뢰감 최저
- WSJ: 미 공공기관, 고용과 임금 상승 부추기다
- Bloomberg: 구글, gmail과 유튜브 등에 챗GPT 탑재
- CNBC: 일론 머스크, 소셜 네트워크 X 이용에 구독료 부과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The Fed Isn't Getting the Economy It Expected 연준이 기대했던 경제 상황 아니다

- 오늘 화요일부터 양일간 연준 회의가 열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연준 관리들의 고민은 기초 물가(underlying inflation)가 수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둔화된데다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 정책 관리들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 소폭 둔화와 성장률이 높은 환경은 금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책 관리들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올해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할지 모른다.
- 그러나 금리인하 시기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Housing Starts Drop to Lowest Since 2020 While Permits Rise

미 주택 착공 건수, 2020년 이래 최저치... 허가 건수 증가

-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2020년 6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주택 구매 여력을 낮추고 있다.
- 오늘 화요일 발표된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로는 11.3% 줄어든 1백28만채로 집계됐다. 이같은 감소는 다주택 건설의 급감이 주도했다.
- 향후 주택 건수를 가름하는 허가 신청 건수는 1백54만채로 늘었다. 이는 일년만에 가장 큰 수치.
- 단독 주택 허가 건수는 지난 2022년 5월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향후에 낙관적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lobal Economy Poised to Slow as Rate Hikes Bite, OECD Says

OECD,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전망”

- 요지: OECD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올해는 3%,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 억제 위해 계속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OECD는 밝혔다.
- 각국의 금리 인상이 경제 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중국의 팬데믹 이후 반등세가 실망을 주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글로벌 성장세는 올해 평균 이하인 3%에 이어 2.7%로 예상된다. 이같은 예상 수치는, 팬데믹이 닥친 2020년만 예외로 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연간 성장세가 가장 약할 것으로 보인다.
- OECD의 수석 경제학자인 Clare Lombardelli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인플레이와 저성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y 10-Year Yields Near Highest Since 2007: Markets Wrap

10년물 국채 수익률 거의 최고치 기록중

- 연준이 곧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바로 전인 현재 주식과 채권은 떨어지고 있다. 높은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 상승을 막기위해 고금리

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이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 9월에 S&P500 지수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나스닥 100도 아마존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떨어졌다. 5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했다.
- 연준이 이번주 수요일에 금리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일가 상승같은 공급 충격을 부추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연준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파업]

CNBC: Striking unions impacting the economy at a level not seen in decades

자동차 노조 파업, 전례없는 여파 미칠수 있어

- 포드, GM, Stellantis 근로자를 포함한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은 현재 일부 근로자에게 한정되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사태가 확대되어 이들 3개 회사 전체 근로자 14만6천명이 파업에 참여하게[되면 큰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만해도 올해 손실된 근로 시간수가 4백10만 시간으로 지난 2000년 8월 이래 월별 단위로는 가장 큰 손실이었다.
- 봉급도 오르게 되면 40년만에 최고치에서 둔화되고 있는 인플레이 현상이 더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COVID]

FinanceYahoo: Moderna, Pfizer on the move on concerns about weak demand for COVID vaccines

모더나 화이자, 코비드 백신 수요 약화에 우려

- 화이자 CFO인 David Denton이 올해 코비드 19 접종률이 24%에 불과하다고 예상한 가운데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독감 주사에 대한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감소하고 있다.
- 모더나의 경우 사업 확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비드 백신과 부스터 샷에 사업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Finance Yahoo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Amazon Develops Version of Cashierless Tech for Clothing Stores****아마존, 옷 가게 무인 캐셔 개발하다**

- 아마존이 옷 소매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버전의 무인 캐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편의점이나 식료품점에서만 무인 결제 시스템이 사용되던 기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아마존 관계자는 이 기계가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 기술의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통해 의류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오늘 화요일 말했다.
- 이전의 경우, 무인 결제 시스템이 천장에 고정된 카메라나, 결제 선반의 센서를 통해 누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파악했는데, 무게와 모양이 비슷한 상품을 구별하는 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 Business Confidence in China Slumps to Lowest in Decades**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 신뢰감 최저**

- 중국과 서방간의 긴장이 악화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 상하이에 소재한 미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5명의 회원 중에 오직 절반이 좀 넘는 사람들이 향후 5년간의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1999년에 조사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오늘 화요일 말했다. 2021년에는 78%의 회원들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었다.
- 연례 조사에 따르면, 제약, 법률 서비스 그리고 소매업 같은 부문은 낙관지수가 조금 상승했지만, 물류, 기술 그리고 경영 자문에 있어서는 회원들이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기업 단속 등의 요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WSJ 기사

WSJ: The Big Employer Still Adding Jobs and Boosting Pay: The Government**미 공공기관, 고용과 임금 상승 부추기다**

- 많은 기업이 올해에 고용을 줄이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연방, 주 그리고 지역에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2023년에 지금까지 37만 2개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8개월 동안 미국에 창출된 일자리의 5분의 1에 근접한 수치이다. 작년에는 동일 기간 대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전체에서 5%밖에 되지 않았다. □
- 이러한 정부 기관의 채용 증가는 팬데믹 기간에 일을 그만뒀던 수백만의 교사, 경찰 그리고 기타 공무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동시장 침체기 속에서 민간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제공했지만 반면에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공무원이 일을 그만뒀었다.

WSJ 기사

Bloomberg: Google Adds ChatGPT Rival Bard to Gmail, YouTube, Docs and More

구글, gmail과 유튜브 등에 챗GPT 탑재

- 구글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도하기 위해 인기 있는 제품들에 이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다. 즉, Gmail, 지도, 문서, 유튜브 등에 자신의 챗봇인 Bard를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구글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드와의 지속적인 채팅을 통해 항공편 정보를 조회하고 루트를 확인하고, 관련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초 2월에 출시된 구글을 Bard는 OpenAI의 챗GPT에 뒤져져 있었다.
- 한편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구글 경영진은 AI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Elon Musk says Twitter, now X, is moving to monthly subscription fees and has 550 million users

일론 머스크, 소셜 네트워크 X 이용에 구독료 부과 예정

- 일론 머스크가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 Benjamin Netanyahu 총재와 라이브 중계 방송에서 예전의 트위터였던 지금의 X에 대해 그의 계획을 논의했다.
- 그는 소셜 네트워크가 거대한 로봇 군대와 싸우기 위해 X 시스템의 사용에 소액의 월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X의 사용자 수는 월 5억 5천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 또한, 그는 명예훼손 방지 연맹(the Anti-Defamation League)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조지 소로스에 대한 비방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자신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인 X가 증오 발언과 반유대주의 감정을 퍼뜨렸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을 변호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국가부채 33조달러 사상 첫 돌파...셋다운 경고음 고조

**내년 예산안 협상 진통 속 공화당 강경파 목소리 커질 듯
IRA 등 재정 압박에 조세 저항으로 추가 세수 확보 난망**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천600조원)를 돌파하면서 '셋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미국 정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개돼 셋다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